홍콩 경제·정치 동향

2012. 2

차 례

1. 일반사항 ····· 2

2. 경제동향 ····· 2

3. 정치동향 ····· 6

4. 국제신인도 ····· 8

5. 우리나라와의 관계 ····· 9

1. 일반사항

구 분	비 고
인 구	707만 명 (2011년)
면 적	1,104㎢
정치체제	중국의 특별행정구 : 一國兩制 (사회주의 속의 자본주의 허용)
행정장관	도널드 창 (Donald Tsang, 曾蔭權)
국내총생산 (GDP)	2,441억 달러 (2011년)
1인당 GDP	34,270 달러(2011년)
외환보유액	2,854억 달러 (2011년)
주요 수출품목	반도체, 석유제품, 선박해양구조물 등
주요 수입품목	반도체, 금 및 백금, 은, 컴퓨터 등

2. 경제동향

가. 국내경제

□ 대외수요 감소에 따라 성장률 둔화 예상

o 2011년 홍콩경제는 1분기 7.5%, 2분기 5.3% 성장하였으나 유로존과 미국의 경기침체 여파로 3분기부터 성장률이 하락하여 2011년 연중 4.9% 성장한 것으로 추정됨.

o 홍콩은 중계무역을 주로 하고 있어 중국 등 주요 수출국의 경기 침체로 2012년도 성장률이 2.8% 수준으로 크게 둔화될 전망임.

□ **경기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부양책 마련할 듯**

o 홍콩은 전통적으로 시장 비간섭주의(laisser-faire)를 표방하여 GDP 대비 정부지출 비중이 8.3%수준에 불과함. 그러나 최근 대내외적 수요 증가로 정부지출 규모가 늘어날 전망임.

- 2012년 3월 예정된 총선에서 직접선거로 선출되는 의석이 30석에서 40석*으로 늘어나는 등 국민들의 의견표출이 용이해짐에 따라 복지 정책 마련, 빈부격차 해소 등의 지출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.

  * 전체 의석수는 70석으로 나머지 30석은 상공·금융·노동 등 직능별 대표들로 이루어진 선거인단에 의해 간접선거로 선발됨.

- 또한, 선진국 경기침체로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의 성장률 둔화가 예상됨에 따라 적극적 정부지출을 통한 경기부양을 고려하고 있음.

o 홍콩정부는 2012/13 예산안(회계년도 4월1일~3월31일)에서 인프라 투자, 교육·의료분야 지원, 근로소득세 환급 등의 지출 방안을 발표함.

- 공공부문 지출로 홍콩-마카오-주해 대교 건설(2016년 완공예정) 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지속하고, 교육과 의료 등 복지 분야에 총 1,490억 홍콩달러를 책정함.

- 또한 2011년 근로 소득세의 75%를 환급하고, 근로소득세 면제점도 상향조정(10만 8천 홍콩달러→ 12만 홍콩달러)하기로 함.

□ **기존 무역·금융·물류산업 외에 의료·교육 등 신 성장 동력산업 육성**

o 홍콩 산업의 근간을 이루었던 관광, 무역·물류, 경영서비스 및 금융산업 외에 신 성장 동력산업으로 6개 산업을 선정하여 적극 육성하기로 함.

- 6개 동력 산업은 의료, 교육, 녹색, 기술·혁신, 지식·컨텐츠, 평가·인증 산업으로, 홍콩 정부는 민간 기업에 임대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산업육성 추진

□ 부동산 규제와 식료품 가격의 안정으로 인플레 진정

o 2011년 임대료와 주된 수입처인 중국의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7월 7.9%까지 급증함. 이후 부동산 거래세 인상 등의 부동산 규제와 중국산 식료품 가격 안정으로 물가상승률이 하락세로 돌아서 2011년 전체로는 5.3%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.

o 2012년에는 물가상승률이 3.6%수준으로 더욱 진정될 전망임.

<표 1> 주요 국내경제 지표

단위: %

구 분	2008	2009	2010	2011e	2012f
경 제 성 장 률	2.3	-2.7	7.0	4.9	2.8
재정수지/GDP	0.1	1.6	2.8	1.5	0.7
소비자물가상승률	4.3	0.5	2.3	5.3	3.6

자료: IMF, EIU.

나. 대외거래

□ 상품수출 둔화로 상품수지 적자폭 확대

o 2011년 미국과 EU의 경기침체로 수출증가가 둔화되어 상품수지 적자가 더욱 확대됨. 2012년에도 선진국의 경기 회복지연으로 수출 증가가 어려워 상품수지 적자가 증가할 전망임.

o 상품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관광객에 의한 서비스수지(662억 달러)와 투자에 따른 소득수지(67억 달러)의 흑자로, 2011년 경상수지는 133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보임.

□ **경상수지 흑자 등에 힘입어 외환보유액 증대**

o 2011년 외환보유액은 2,854억 달러로 전년대비 5.9% 증가함. 외환보유액은 월평균수입액의 7.74배임.

- 홍콩의 외환보유액은 2011년 12월 기준 중국, 일본, EU, 사우디아라비아, 러시아, 대만, 브라질, 스위스, 대한민국, 인도 등에 이어 세계 11위 규모임.

□ **위안화 절상 기대 약화로 홍콩의 위안화 예금 증가 주춤**

o 2011년 1월~9월 위안화 예금 잔액이 2배 이상 증가하여 6,222억 위안(1,003억 달러)을 기록하였으나, 10월부터 감소하여 2011년 11월말 6,014억 위안(970억 달러)을 기록함.

- 홍콩의 위안화 예금 감소는 미국 신용등급 강등과 유럽 위기 고조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현상으로 위안화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지 않을 수 있다는 홍콩 주민들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됨.

o 홍콩 내 위안화 절상 기대 약화로 딤섬본드 발행도 종전처럼 활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.

<표 2> 주요 대외거래 지표

단위: 백만 달러, %

구 분	2009	2010	2011e	2012f
경상수지	17,964	12,800	13,300	16,400
경상수지/GDP	8.6	5.7	5.4	6.3
상품수지	-26,861	-42,965	-55,800	-65,700
수출	321,830	394,026	415,400	136,600
수입	348,691	436,991	471,200	58,500
외환보유액	255,842	268,743	285,455	274,606

자료: IMF, EIU.

3. 정치동향

가. 정치·사회 동향

□ 금년 3월 행정장관 선거 예정

o 중국의 지지와 대중적 인기를 바탕으로 도널드 창(Donald Tsang, 曾蔭權)은 2005년 7월부터 안정적으로 행정 장관직을 수행함.

o 도널드 창 행정장관의 임기는 금년 6월 종료되는데 3월에 새로운 행정장관 선거가 진행될 예정임. 선거 방식은 간접선거로, 선거위원회 소속 1200명 위원들의 투표로 새 행정장관이 결정됨.

- 현재까지 헨리 탕(唐英年) 전 홍콩특구 정무사장(총리격)과 렁춘잉(梁振英) 전 행정회의 소집인의 선거전으로 좁혀지고 있는 양상임. 그 외 하준인(何俊仁) 민주당 총재가 민주파 통합후보로 입후보함.

- 헨리 탕 후보가 유력 후보로 점쳐지고 있지만,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렁춘잉 후보도 당선될 가능성이 높으며, 두 후보 모두 '친중파'로 분류됨.

□ 높은 경제성장에도 불구, 빈부격차가 잠재적 불안요인

o 유엔 개발프로그램(UNDP)에 따르면 홍콩의 지니계수는 43.4로, 선진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임. 지니계수가 높은 선진 국가는 싱가포르(42.5), 미국(40.8), 한국 (39.2) 등임.

- 2011년 소득기준 상위 10%의 월평균 소득은 7만 7,000 홍콩달러(약 1,065만원)인 반면, 하위 10%의 월평균 소득은 3,000 홍콩달러(약 41만원)임.

o 특히 2011년 치솟은 주택가격과 식료품 가격으로 서민들의 삶이 더욱 힘들어져 홍콩 주권 반환(1997년) 14주년 기념일에 수만 명의 인파가 거리시위를 진행하기도 함.

나. 국제관계

□ 중국, 미국 등과 우호적인 관계 유지

o 홍콩은 중국의 특별행정구(Special Administration Region: SAR)로서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, 미국, 일본, 영국 등과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.

o 2003년 6월 중국-홍콩 간 “긴밀한 경제적 동반자 협정”(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: CEPA)이 체결된 후, 홍콩 재화 및 서비스의 중국 수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등 경제통합 가속화에 기여함.

- 특히 2011년 12월 8차 보충협정 체결로 홍콩의 서비스분야 진출이 확대됨. 홍콩기업은 중국 기업과의 합작 없이도 중국에 병원과 보험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으며, 제조업, 연구시설 및 도서관, 박물관 등의 문화시설의 진출도 가능해짐.

4. 국제신인도

가. 외채상환태도 및 대외지급능력

□ 외채 규모가 작아 디폴트 가능성 미미

o 대외채무가 2011년 말 GDP 대비 28.4%(694억 달러)로 채무 규모가 크지 않음.

o 외채 원리금 상환비율(DSR)도 0.9%로 매우 낮음.

<표 3> 주요 외채관련 지표

단위: 백만 달러, %

구 분	2008	2009	2010	2011[e]	2012[f]
총 외 채 잔 액	48,643	39,926	49,800	69,400	71,300
총외채잔액/GDP	22.6	19.1	22.2	28.4	27.4
D S R	1.8	1.3	0.8	0.9	1.1

자료: IMF, EIU.

나. 주요 신용도 평가기관의 평가

□ 3대 신용평가기관, 신용 등급 유지

o 2011년 8월과 10월, S&P와 Fitch는 홍콩의 신용등급을 종전과 같이 AAA와 AA+로 유지하기로 함. 이는 안정적인 재정상황과 외환보유액 및 중국의 고도성장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.

<표 4> 주요 기관별 신용도 평가 순위

평가기관	최근 평가 등급	종전 평가 등급
수출입은행	A (2011. 3)	A (2010. 4)
OECD	1등급 (2011. 3)	1등급 (2010. 4)
S&P	AAA/Stable (2011. 8)	AAA/Stable (2010.12)
Moody's	Aa1/Positive (2010.11)	Aa2/Positive (2007. 3)
Fitch	AA+/Stable (2011.10)	AA+/Stable (2010.11)

5. 우리나라와의 관계

□ **국교수립**: 1949년 11월 29일 (북한과는 미수교)

□ **對홍콩 무역에서 우리나라가 대규모 상품수지 흑자 지속**

o 2011년 교역규모는 332억 달러이며 우리나라의 대 홍콩 수출은 전년 대비 22.5% 증가한 310억 달러, 수입은 전년 대비 19.0% 증가한 23억 달러로 대규모 상품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음.

- 주요 수출품은 반도체, 석유제품 등이고, 수입품은 반도체, 금 및 백금, 은 등임.

<표 5> 한·홍콩 교역 규모

단위: 백만 달러

구 분	2008	2009	2010	2011	주 요 품 목
수 출	19,772	19,661	25,294	30,975	반도체, 석유제품, 선박해양구조물 등
수 입	2,223	1,487	1,946	2,315	반도체, 금 및 백금, 은, 컴퓨터 등

자료: 한국무역협회.

□ 홍콩은 우리나라의 제6위 투자대상국

o 2011년 1월~9월 우리나라의 대 홍콩 직접투자는 12억 500만 달러로, 홍콩이 우리나라 전체 해외투자의 5.4%를 차지하여 제6위 투자대상국임.

- 우리나라의 대 홍콩 투자는 제조업이 31.8%로 가장 많고, 그 다음으로 광업(28.5%), 금융 보험업(13.5%) 등의 순서임.